



제 1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한선예, 박이은현** 과 함께 하는 사람들

feminist@yonsei.ac.kr

제15대 총여학생회 선거

김한선예, 박이은현 과 함께 하는 사람들

포사!



15대 총여 선본을 만나다

1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며

15대 총여 선본의 공약 총정리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

달콤쌉사름한, 日常多返事

파란滿場 여성주의

어느 편협한 여성주의자의 monologue



일/破/만/波



C·O·N·T·E·N·T·S

총여학생회 정·부후보 소개 ● 4

14대 총여학생회 평가 ● 6

1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며 ● 9

공약 총정리! ● 11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 - 일상과 이상 사이 ● 14

달콤쌉싸름한, 日常多返事

1. 바람을 가르며 맑은 하늘을 달리고 싶다 ● 18

2. 나, 생긴대로 살래! ● 20

3.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 22

파란滿場 여성주의

1. 성폭력, 참을 만큼 참았어! - 새터반성폭력내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 26

2. 자취, 그 쓸쓸함에 대하여 - 피폐하지 않은 자취생활을 위한 제언 하나 ● 28

3. 지속적인 여성학 강좌 세미나 - 여성학,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 ● 30

4. 여성 : 일 = 여대생 : ???

- 나는 오늘도 엄마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아간다 ● 32

- 커리어우먼, 그 멋지디 멋진 다섯 글자여 ● 34

5. 백만 년도 모자랄걸? 여성주의 잡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 나는 내게 맞지 않는 관계를 거부한다 ● 36

광고_총여학생회 홈페이지가 여성학/여성주의 정보창고로 변신합니다! ● 39

어느 편협한 여성주의자의 monologue ● 41

함께한 사람들 ● 43

총여학생회 정후보

김한선혜/여랑

- 사회계열 3학년 사회학전공

- 2000년 천안북자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반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 '광년의 미친년 되기' 기획
- 2001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활동
새내기 여성학 학교 기획단 활동
제4회 여성제 '풍류여인' 기획단 활동
여학생휴게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여휴민민' 활동
- 2002년 2002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활동
메이데이 여/성 연세 기획단
(여성신문) 대학생 통신원 활동

제 15대 총여학생회 정후보 출마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내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 선언하는 이유는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의 100%가 여성주의로 점철되어서 자신 있게 혹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 규정하는 것은 내 안에 깊숙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시선들, 여자는 이래야지...라는 무의식적인 생각들, 이미 내면화되어 버린 가부장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 농담이라는 명목으로 친근함의 표시라는 이유로 - 아무런 성찰 없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적인 언설과 행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을 괴롭게 꼬집어내어 성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편협하다, 민감하다, 예민하다, 피곤하다' 라고 평가한다면 나는 내가 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더 편협해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4[일/破/만/波

일상의 지루함을 깨뜨리고 [破] · 여성주의적인 흐름들을 퍼뜨린다 [波]

대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처음 여성주의를 접하고 여성주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때의 설레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큰 기쁨이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해 왔던, 그러나 쉽게 판지를 걸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정말 신나고 설레는 일이었다.

설레임을 나누는 여성주의

경험이라는 것은 혼자만 생각하고 고민했을 때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 경험은 살아있는 것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 본다면,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큰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약간은 두렵기도 하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두렵고, 편견의 벽도 높기만 하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에는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현실과 편견의 벽, 이것은 나 자신이 혹은 우리 모두가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내가 처음 여성주의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힘을 얻고 싶다. 내 삶의 힘이 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 본다.

총여학생회 부후보

박이은현/노래

- 인문계열 3학년 노어노문학 전공

- 2000년 제주사대부고 졸업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입학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활동
중앙동아리 YRC 활동
- 2001년 모반 성교육 행사 '진수성천' 기획
- 2002년 모반 소식지 '모반을 꿈꾸다' 기획

제 15대 총여학생회 부후보 출마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제14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일/破/만/波의 생각

▼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 기분좋은 충돌은...?

제14대 총여학생회는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존중을 기반으로, 그 차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여성' 경험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소통'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여성들의 경험이 오고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여성의 경험, 여성주의에 대한 '일상의 고민'들 또한 나누고자 하였다. 이처럼 나눠 갖는 여성주의를 통해, 그리고 일상에 대한 소소한 경험과 고민의 나눔을 통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차이의 지점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then...?

'소통'에 중점을 두었던 만큼, 14대는 이전 총여학생회들에 비해 매체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정기적인 잡지발간,



홈페이지의 웹진으로의 전환, 화장실 신문 발행, 그리고 여휴 날적이를 통한 (여)학우들과의 소통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이 중 여휴 날적이 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매우 잘 지켜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 없이 잡지가 발행되고 화장실 신문이 부착되고, 웹진이 꾸준히 업

데이트 된 것이,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성실함이 과연 소통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내적인 측면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던 방식을 본다면, 그리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떡볶이 수다를 통한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은 많지 않았다. 화장실 신문의 경우도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분명 부족했다. 어떤 면에서는 쌍방의 소통이 아닌 총여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쳤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소통'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총여의 활동과 고민들이 얼마만큼 학우들에게 전달되었는가에 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들의 나눔을 고민했고 이를 위한 통로를 만드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14대는 어떠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매 시기마다 이루어진 고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드러내지 못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면 그 곳의 존재감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눠 갖는 여성주의'의 실현의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떡볶이 수다'에서는 편하게 읽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수위의, 그럼에도 여성주의적인 색채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글들을 싣고자 노력했고 이를 통해 총여학생회-여성주의가 좀더 쉽게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자기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한 학우들과의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 나눔의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여학우 취업 대란-we will survive!'에서도 엿보인다.





여성학 조모임과의 연계, 페미니즘 강좌 개최 등도 관심사가 일치하는 영역을 잡아내어 활동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된다. 최대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어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은 넓게 보면 여성주의를 나눠 갖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So!

결국 14대 총여학생회는,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녀들이 중시했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나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떡볶이 수다'와 '화장실 신문'을 통해 오고갔던 연세인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오롯이 담아내고 이에 대한 14대의 독자적인 생각들을 제대로 펼쳐내지 못했던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나눠 갖는 여성주의에 대한 시도에서, 소소해 보이는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여성주의적인 고민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의 논의들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일상에서의 자기 성찰과 실천'이 여성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은 이후의 총여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것이다.



● 1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며

일상을 깨뜨리고 여성주의적인 흐름들을 멀리 퍼뜨린다!

일 / 破 / 만 / 波

● 일상 들여다보기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속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의 중요성.... 이제까지의 총여학생회를 통해 무수히 들어왔던 말들이다. 여성이기에 겪었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 어쩌면 소소해 보일지 모르나 그냥 넘기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듯한 경험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학우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경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고, 일상에서의 불편한 경험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여학우들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문화를 포함하고 있기에 일상 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그러나.....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

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의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남들도 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았는지, 일상에서의 불편함들에 대해 단지 걸기를 귀찮아 하거나 두려워 하지는 않았는지... 마치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물과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을, 그 속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은 아닐까?

● 깨뜨리기

이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뒤집어 보자. 일상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에 대해, 내 안의 편견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경험들에 대해 한 번쯤 판지를 걸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잔인하게 깨뜨리자.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 낯설고 두렵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떠보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경험들이 다시 살아날테니 말이다.

● 퍼뜨리기

여성주의적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일상의 경험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열 다섯 번째를 준비하고 있는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일상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일상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여학우들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경험들에 대해 한 번쯤 뒤돌아보고 일상을 바라보는 낯선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잔인하게 깨뜨린 일상의 '당연함'에 여성주의적 흐름을 퍼뜨리는 일, 이것이 내년을 준비하는 총여학생회의 몫이다.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 핵심공약 총 정리!

1. 일상과 異想사이

성폭력, 참을 만큼 참았어! - 反성폭력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 성폭력

성폭력에 무감각한 일상을 깨뜨리겠습니다. 반성폭력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1. 새터反성폭력내규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되지 못해 왔던 새터反성폭력내규에 새로운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2. 참을 만큼 참았어! 성폭력사건 발생시 대처와 해결을 위한 매뉴얼, '참참참' 발간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과 그 해결방법을 나누는 반성폭력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3. 반성폭력 학칙, power puff up!

: 반성폭력 학칙의 빈틈을 메우기로 한 2002년도 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성교육 행사는 계속된다. 쭉쭉-

: 나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알아가는 성교육 행사가 보다 알찬 내용으로 2003년에도 이어집니다.

活力공간, 滿滿한 여휴 - 여휴에서 영화를? 요가를?

: 단순히 쉬고 가는 휴게실이 아닌, 여학우들의 문화가 가득 찬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 즐겁지만 뜨끔한 일상의 재발견,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피해하지 않은 자취생활을 위한 레얼 하나
: 자취생 여학우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고 싶지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알고 있었지만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 곳, 여학우 새로/다시 배움터**
: 선배의 내공을 물려받자! 후배의 고충을 풀어주자! 여학우들의 경험과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립니다.

백만 년도 모지랄딱? 여형주의 잡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 달콤쌉싸름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주의 잡지를 지속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파란만장 여성주의 - 여성주의 내공 쌓기

여형학, 여형의 목소리는 어디에?
: 여성학 수업의 빈틈을 메우는, 지속적인 여성학 강좌/세미나를 열겠습니다.

열려라! 홈페이지, 공부하자! 여형학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가 여성학/여성문제 정보창고로 변신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

성찰 없이 잠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가부장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에
대한 끝없는 자기 성찰과 적극적인 해석에서부터 다
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일상과 이상 사이

'여성주의'라는 말은 이제는 익숙하게 그래서 때로는 진부하게까지 들리기만 한다. 수업시간에도 '페미니즘적 시각'이라고 조금이라도 소개해주고, 여성학 수업도 교양으로 많이 듣는다. 학회에서도 세미나를 할 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 번 짚은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부모성 함께쓰기를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보고 '성 하나는 남편 성인가?'라고 무식함을 자랑하는 이들은 없는 듯 하다. '성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어렵듯이 알고 있고, 그 것이 '좋지는 않은 것, 올바르게 않은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인지 자신은 죽어도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고 싶은 지도 모른다.

'여성주의'라는 말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지, 여성주의적인 것이 마초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보장해주는 것만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지칭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적어도 여성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들이 여성주의를 그저 '당위'로만 혹은 형식적으로 그 거품만을 받아들이고 있음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여성주의 학술회'를 내 걸었던 총학생회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국민들이 성금을 보낸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쾌한 정치개혁'이라는 플래쉬는 '무현 오빠에게 피부미용실 갈 돈 10만원'을 내는 여성과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돌을 던졌지만 40대에는 정치개혁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나온다. 기존의 성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외모에나 신경을 쓰고, 돈을 쓰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이 플래쉬는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홍보하고 윤민석씨가 만든 '사랑해 오빠'라는 노래는 '조중동'을 '빠순이'로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에 대해 그들이 생각해 낸 가장 심한 욕은 '빠순이'였던 것이다. 이회창 낙선/낙천 운동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진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성찰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자신과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둔다면

나는 감이 멀어지고 싶다.

당신이 이는 여성주의는 여성주의가 아니라고...



여성주의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단지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소하다'라거나 '전체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마초맨 안 부르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대?'라는 식의 물음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여성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물이해에서 나온 말이다. 마초맨을 당장 몇 사람이 부르고 안 부르는 것에 따라서 갑자기 여성의 지위가 향상 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마초맨'의 의미를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마초맨으로 표현 되는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소외시키는 웅원 문화 전체'를 자신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 지이다. 여성주의가 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주의란 단지 하나의 지식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조발표에서, 세미나에서 그렇게 '올바른' 여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겪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존의 성권력이 그대로 작동한다면, 그렇게 비판하던 성역할을 연애 관계 속에서 그래도 답습하고 있다면,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엄마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면, 여성이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성폭력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자신과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둔다면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아는 여성주의는 여성주의가 아니라고...



여성주의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단지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소이다'라거나

'전세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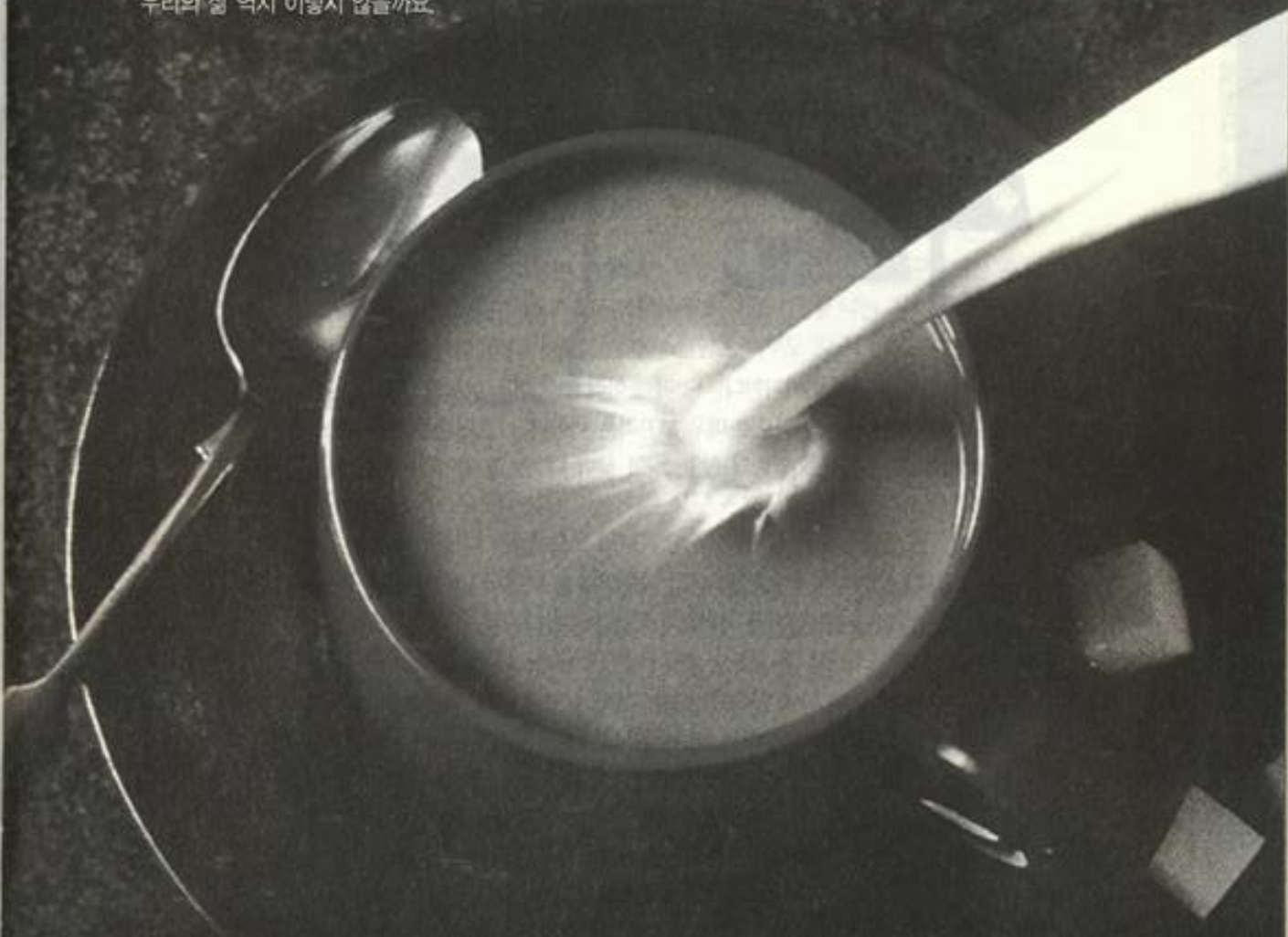
이야기 한다.



여성주의와 일상에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진부해져버린 이야기이지만 가부장제라는 적은 저~기 어디 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없애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잠정적 가해자'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 역시- '잠정적 가해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성찰 없이 잠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가부장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에 대한 끝없는 자기 성찰과 적극적인 해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달콤쌉싸름한, 일상다반사

생크림이 담뿍 담긴 진한 커피를 마셨나요?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크림에 취해있는 그 순간,
이내 뜨겁고 씁쓸한 무언가와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은 묘한 어울림
그리고 즐거움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렇지 않을까요.



01/ 바람을 가르며 맑은 하늘을 달리고 싶다

02/ 나, 생긴대로 살래!

03/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바람을 가르며 맑은 하늘을 달리고 싶다'

← 일상

이야기 #1

나에게 여성주의란 이제 항상 입는 옷이나 항상 만나는 친구와 같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래서 나의 여성주의에 대해 내 속에서 끄집어내어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만큼 여성주의자로서 현재의 나의 고민이 치열하지 않고, 나의 삶이 나이브한 것이라는 반증이니까

나는 소심함이란 병을 갖고 있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많이 치료된 것 같지만, 증상이 워낙 지독했기에 아직까지 치료중에 있다.

어제는 버스 뒤 칸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내 팔을 '퍽' 치고 지나갔다. 순간 '아악!' 하는 음향을 냄으로써 그 놈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야 할 텐데 --:: 웬 일인지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는 팔의 통증을 참으며 씩씩거리고만 있다. 순간 우뚝 '뒤늦게라도 소리를 내 말어, 저놈 뒤통수에 대고 마라고 해 줘야 하는데 어퍼지?'.. 갈팡질팡한다. 잠시후 놈은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유유히 버스에서 내린다.



나는 이전에 내가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시키는 것 이외에는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하라는 것은 끝까지 열심히 하고, 할 말이 있어도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 혼자 물어버리고.. 하지만 그것은 참을성이나 끈기라는 포장아래 여자아이에게 요구되어진 수동성과 소심함이었다. 나는 강요된 수동성과 소심함을 너무도 잘 체화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아직도 버스에서, 아저씨 '히터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하는 작은 요구 - 하지만, 승객으로써 당연한 권리 - 도 하지 못한다. (글로 쓰고 보니 정말 부끄럽다) 버스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는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생각나는대로 말할 수 있는 당연한? 용기가 있네', '역시나 그들의 세상이구나' 하는 쓴 깨달음을 얻는다. 말하는자는 곧 권력을 가진 자이며 동시에 권력을 가지게 될 자이니.

나는 아직 소심하고 목소리도 작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용기를 얻는다. 껍벌남이나 골볼건 마초들을 함께 씹어대면서 다음에 만나면 꼭 한방 먹여야지라고 다짐하며 힘을 얻는다. 여성주의는 나와 내가 선 지금 이곳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주의자들을 통해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치열한 에너지를 얻는다.

나는 오늘도 교복 입은 여학생을 쉽게 보고 무시하는 아저씨들, 시댁지 않은 이야기로 목소리를 키우는 마초씨들에게 한방 먹이는 상상을 한다. 오늘도 소심한 나이지만 내일은 더 용감한 여성주의자가 되리라는 다짐을 하며.



나, 생긴대로 살래!

← 일상

이야기 #2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전략)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삶의

의미도 다르다. 저마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살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동일한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에게 민폐 끼치게 된다. 가장 행복한 사회는 사람이 각자 생긴 대로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곳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저 자신이 생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수동적 운명론이라고? 생긴 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사회'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데!

(2002. 10. 19. 한겨레 '영혼을 울린 한마디' 중 권학범 '생긴대로 살아라!')

그렇다, 생긴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전수받은 '생존법칙'에 맞춰 최대한 빨리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신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이니 말이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죽어버릴 수도 없으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치싸기며 슬그머니 좋은 줄 뒤에 몰래 붙거나, 등글어지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모난 내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으리라.

이 땅에서 여성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까, 쉬운 일일까 힘든 일일까. 너무 뻘해서 황당한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딸이라고 있는 것들 다 소용없어, 아들이 있어야지'하는 말썸으로 분노를 동반한 험기증을 종종 느끼게 해 주시는 아버지, '너 꼴이 이게 뭐냐? 여자는 예쁘게 꾸밀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야.'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바지를 질질 끌고 나가는 내 뒷모습을 때려보시는 어머니, '난 페미니즘 무섭더라, 여자만 잘살자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남녀가 함께 잘 살아야지'라는 말로 자신의 비편향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친구들, 1면 오른쪽 윗부분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여름 복장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실어느는 스포츠신문들, '예쁘지만 한 팔쥐와 '착하기까지 한' 콩쥐의 왕자님 쟁탈전에 관한 드라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송사, 그런 드라마들에 '여성의 적은 여성! 따위의 평이나 쓰고 앉아 있는 기자들 등등... 하루에도 수백가지는 족히 될 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눈과 귀를 뚫고 머릿속으로 들어와 정신을 마구 헤집어 놓으니, 어찌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눈과 귀에 자동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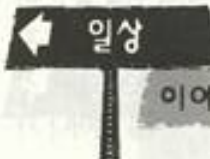
그렇지만, '너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 좌절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에 신경쓰느라 종종 혈압이 치솟아오르면서도, 내 주위 '보통' 사람들이 내 분노의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허탈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도... 나는 여성주의자로 살고자 노력하는 내가 좋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는 못할지언정, 원망하고 중요하게끔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 기특하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다름을 뭉뚱그려 결국은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폭력적 '평등주의'가 아직 내 머릿속은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무엇보다도, 비록 마악하게나마 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감사함을 느낀다. 눈물겹도록.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물론, 더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게 될 것이다. 가끔은 피를 좀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등글게 맞추며 살아가는 건 부딪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내 모난 모습이 나다우니까, 다치더라도 툭툭 털고 씩 웃으면서 다시 일어 나면 되니까.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이야기 #3

이 글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나의 미국에서의 영어연수 때의 생활을 돌아켜보고자 한다. 분명 1년 정도 전의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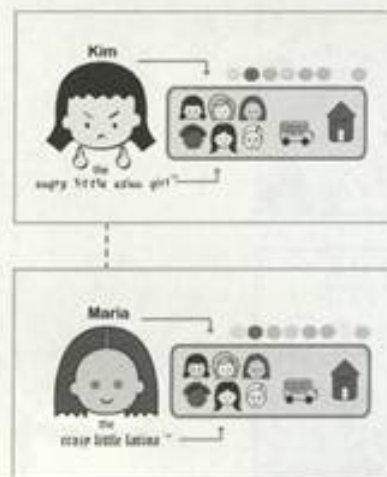
일임에도 너무나 꿈만 같았던 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가 그 곳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에 첫발을 디딘 후 난 완벽히 공적인 그리고 법적인 권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난 그저 소수인종의, 그것도 무슨 조그만 인형이나 된 듯 병어리로 지내야 했다. 그렇다. 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아시아 병어리 여자'였던 것이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동정심을 느낀 특권 집단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무시를 감당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순간이었다. 난 다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색채로 채워가야 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무슨 색깔로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었다. 나는 결국 비굴하게 동정심을 받으며 땃땃하지 않은 보호를 받느니 내가 나의 소리를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보리라 다짐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 후로 나의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내가 설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렇게 곱게만 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노력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아시아의 병어리 여자가 아니라 부족하지 만 용기 있는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더 이상 부서지기 쉬운 인형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받지는 못했지만.

특히 나의 그런 노력에 못마땅했던 사람은 누구보다 그곳의 한국 남자들이었다. 물론 한국 여자가 나 외에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 모두가 그 한국 남자들의 집단 속에서 보호받는 것을 고맙게 여기다 못해 영광스럽게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나의 자립 노력은 더욱 그들에게는 의 눈엣가시 같은 것이었다. 난 그 당시 왜 같은 한국인이 서로 할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외국까지 나와서 한국 남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유지되어야 할 만큼 그것이 그렇게도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다. '나도 한국인이다. 하지만 난 한국인 집단에 속하기 어려운 튀는 한국인 여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잘난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의 보잘 것 없는 동양 여자에 불과했고, 난 그 당시 내가 마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아니 소속되지 못한 국적도 없는 인간, 어디 외계 어디로부터 온 외계인 정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 내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과연 난 어디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이 있다. 내가 한국인이이상 그리고 나의 모국어가 한국어인 이상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그리고 한국어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좁은 보수적인 한국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도 나를 잃을 위험만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짧았던 미국에서의 생활은 나의 그전의 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고 한국과 미국 모두를 향한 분노, 정체성에 대한 혼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 그러면서 막연한 희망과 이를 위한 투쟁, 그런 모든 것들이 얹어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를 포기하고 커다란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나의 소리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금 역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한국인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만, 적어도 내가 나에게 비겁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덕소부인

2/28 장지현실



파란만장 여성주의

책 속에 갇혀있고 내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여성주의'를 거부합니다.
넌리넨리, 우리 삶 속의 모든 곳에 퍼져나가
일상을 꼼꼼하게, 조분조분 바꾸어나가는 여성주의.
내 삶의 원리와 실천, 그리고 즐거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성주의를 고민합니다.

- 01/ 성폭력, 참을만큼 참았어!
- 02/ 자취, 그 씁쓸함에 대하여
- 03/ 지속적인 여성학 강좌 세미나
- 04/ 여성 : 일 = 여대생 : ???
- 05/ 백만 년도 모자랄걸?

여성주의 잡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성폭력, 참을 만큼 참았어!

새터반성폭력내규의 Upgrade!를 위해

1. 2002 변화된 지형

2002년, 이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함께한지 3년차가 되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내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보다 넓게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처음 내규가 시행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는 반응은 한층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동시에 제법 놀라웠던 일은 새터 내규의 사례들도 제시되어 있는 알들이 내규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우들에게는 무척 생경한 일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느냐"는 반응은 명문화된 새터 내규가 학우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2000년에 만들어진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새터 문화자체를 바꾸어 내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내규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도 많지만 새터 내규가 만들어진 후 새터 분위기나 놀이 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새터 내규를 지키는 것과 반성폭력 의식의 확장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순히 내규 조항에 나온 것들은 하지 않고 내규를 지켰다, 우리반은 성폭력이 없다라는 말한다면 그것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새터 자리에서 내규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내규 조항을 읽는 것, 내규 조

문을 부착하는 것에 그치고 왜 내규가 필요한가 라면가 무엇이 성폭력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어내는데 내규의 근본적 목적이 있음을 생각할 때, 2003년 이후 새터를 바라보면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올해 새터를 준비하면서부터 내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계속 제기 되어왔다. 시기적 조건이 달라진 만큼 시기에 맞는 새터 내규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새터/놀이문화를 바꾸어 낸다는 의미가, 2000년과 현재가 같을 수 없다. 또한 2000년에 시기적 급박함으로 인해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충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규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는 작업만은 아니다. 2002년 변화된 연세의 지형을 담아내고, 내규의 특정 사례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반성폭력 운동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새터 내규+단대별 규약으로 연세 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또한 단대별 내규 제정 역시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의 새터 내규가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정이 많이 다른 단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체 새터 내규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전 단대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졌고, 큰 맥락에서는 모두 합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단대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 가령 생과대와 공대 혹은 음대와 사회대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 이처럼 각 단대에 따라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고민과 인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단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특정 단대들에서는 전혀 문제로 못 느낀다거나 멀리있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다. 동시에 총여가 '주는'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라(실제로 이런 반발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 단대에서 '합의' 하여 만든 약속이라면 구성원들이 내규를 지키는 데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며, 사례나 규약의 조항들도 단대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단대별 규약과 함께 흐름을 같이 해 갈 때 연세 내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로 다시 시작하자!

자취, 그 씁쓸함에 대하여

피폐하지 않은 자취생활을 위한 제언 하나

자취생활, 부모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은, 얼마간의 자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터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매력적이지만, 자유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 동안 별로 해보지 않았던 가사일과 친해져야만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취를 해 본 이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사일은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생활용품들을 제때 구입해 놓아야 하며, 생활비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밥해먹는 것 하나도 힘이 드니! 엄마가 해 주셨던 따뜻한 밥이 너무도 그리움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전담하시는 엄마의 고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가사분담의 필요성도 절감할 수 있다.



자취라는 것은 '생활의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혀 새로운 환경이니 만큼 여러 가지 생활 정보가 필요하다. 낯선 도시, 낯선 동네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보들을 발견해야 하고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독립심을 키워 가는 과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힘이 드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여자 혼자 자취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종종 있음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반 지하에 사는 경우, 이상한 취미를 가진(?) 남자들의 '홈쳐보기'에 시달려야 한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시달린다'기 보다는 '공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놀라서 "꺼져버려!"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경찰을 부른 경험도 있었으니, 이럴 땐 주위에 사는 아는 언니라도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자취를 하면서 가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 특히 자취하는 여학우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와 비슷한 다른 자취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학교 친구이자 동네 친구로서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계기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찬을 나누며, 집에서 올라온 과일을 나누며, 가끔은 누구네 집에서 파티도 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혹은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고 집주위의 '변태'를 어떻게 해치울 것인가 대처법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한 자취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자취생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러한 힘을 주고받아 더욱 독립적으로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여 '딸들, 나아가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에 일침을 가하는 멋진 자취생, 그녀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가끔은 누구네 집에서 파티도 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혹은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고 집주위의 '변태'를 어떻게 해치울 것인가
대처법을 함께 고민하는 등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한 자취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인 여성학 강좌 세미나

여성학,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

캠퍼스 안과 밖에서 겪게 되는 일상 속에서, 여성들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불만들을 경험하곤 한다. 때로는 나의 불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 불만을 구체화시키기는 참으로 어려워서, 적절한 시점에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변함없이 소중한 여자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남성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수업의 조모임과 뒤풀이 자리에서,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것 저것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

아! 목마르다. 나는 목마른 마음에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여성학 수업을 듣기로 했다. 그 곳에서는 나의 막힌 생각을 진전시켜 줄 수 있는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내의 여성학 수업들은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길러주기보다는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여성학 수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치적 감수성을 접어둔 채, 우리 사회의 성권력과 위계질서를 단순히 관찰하고 이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은 지



식과 암기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여성학보다는 오히려, 이해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부분, 가장장계를 뛰어넘는 학우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있던 것들을 비로소 발견해 내는 그 지점,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 시점들을 우리에게 가득 제공해주는 알찬 수업을 원한다.

여성학 수업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획일적인 커리큘럼 및 교내 프로그램이다. 과목명은 다른데, 각 수업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학생들을 가우동하게 만든다. 또한 수업의 커리큘럼은 사회가 바뀌고, 쟁점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어도

그다지 변화가 없다. 이와 함께 '볼 보듯 편한' 교재 선정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주변의 세미나 혹은 강좌들이 유용한 책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즐거운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는 여성학 관련 수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길러주기보다는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여성학 수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수업, 즉 비대칭적인 사회구조와 성권력 관계를 가시화하고 학생들의 성찰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여성학 수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일상 속에서 힘을 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혹은 그런 여성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여성학 수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성학 수업은 물론이고, 각 수업의 질적 향상이 확보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즐거이 소통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 일 = 여대생 : ???

나는 오늘도 엄마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아간다

#1 선아의 일기

여자들의 일은 일도 아닌가 뭐.

아~ 배고프다.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2시에나 공강이었다. 부름샘을 목표로 친구와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웬걸. 그 시간은 배식을 안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내 친구는? 왜 이렇게 아줌마들 쉬는 시간이 길어!? 라고 하면서 불평인게다. 집에서 맨날 하는 게? 밥? 일텐데, 밥하는 게 직업이니 그렇게 쉬운 직업이 어딴다고 한 술 더 뜨기 시작한다. 예휴... 여름이고 겨울이고 긴 장화를 신으시고, 커다란 술 앞에서 위험하게 계시는 아줌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왜 여자는 당연히? 쉽게? 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밥을 하는 엄청난 게 강도 높은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밥뿐만이 아닌 것 같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 숙련을 요하는 백화점 판매직이나, 보험설계사, 보살핌이나 돌보는 일, 사람에 대해 감정을 많이 쓰는 일들, 가사노동과 관계된 일들, 각종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냥 '여성의 일=사소한 일, 쉬운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다.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감성만 가득가득 풍부하고, 집안일을 잘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여자들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일까? 왜 또 이런?여자들의 일?은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2 윤지의 일기

'먹고 사는' 일은 끝이 없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었으나... '먹고사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한다고 하지만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감을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퍼서 말리고, 때때로 다림질하고... 밥 한번 해 먹으려면 시장을 봐와서, 쌀을 씻고, 밥하고, 때때로 냉장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해서 치우는 이 모든 일은 정말 어렵기만 했다. 익숙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엄청난 두뇌활동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쪽글이나 레포트 쓰는 것처럼 한 일주일 개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장 빨래를 하지 않으면 입을 옷이 없고, 3일 정도 굶고 한꺼번에 밥을 먹으면 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더 어렵고 열 받게 (!) 되는 것은 어제 분명히 바닥을 닦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수북하여 또 같은 노동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해오신 것이었다니! 맨날 책상 치워라, 왜 이렇게 옷을 자주 벗어놓느냐... 그 때는 짜증났던 엄마의 잔소리가 새삼 다르게 다가온다. '평화로운 가정, 안락한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다.

여성 : 일 = 여대생 : ???

커리어우먼, 그멋지디 멋진 다섯 글자여

#3 헤미의 일기

이거나 먹어, 사장아

여보세요~? 야, 나 오늘 사장한테 이거나 먹으라고 했다.
왜그러냐구? 야, 흥분 안하게 생겼니?

사장이 나한테 하두 커피카피카피카피 그러길래 난 그런일 하러 온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지! 그랬던 그럼 뭐하러 왔냐면서, 내 불을 살짝 건드리는거야.

머? 그것도에 이거나 먹으라고 하진 않지~ 글썄, 사장이 나한테 얼굴이 먹음직스러운 사과 같다는 둥, 맛있는 데는 따로 있다는 둥, 그딴 소리를 하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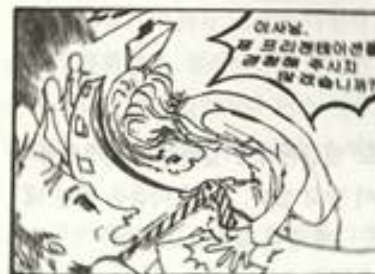
웁름하게 쳐다보면서! 손이 내 허리로 올라오길래 커피숍으라고 준 돈 입속에 넣어줬어! 아주 깔끔하게 회사 그만 댔다! 머? 응, 그러게..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나 이제 어찌냐..



THE FIRST WOMAN IN SPACE

(위의 일기들은 '112주년 MayDay 여성의 눈으로 노동 바라보기'에서 발췌했습니다)

터지지 않은 풍선, 그러나



BY 단단

백만년도 모자랄걸? 여성주의 잡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내게 맞지 않는 관계를 거부한다

"세뇌"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계명처럼 추앙 받는 몇 가지 명제가 있음을 우리는 어렵게 알고 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돼",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어디 아파?", "왜 공한 표정으로 있어?" ... 등등 어느 모임에서 내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열이면 여덟은 이런 것들이다. 이 말들에 함의된 인간관계의 "진리"란, 사람들 속에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과 당연히 모임 자리에서는 잘 어울리고 공하지 않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당위는 신체적인 고통 등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에 한해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건데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러한 말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고 나아가 "그럼, 내가 이상한 것일까?"하고 의심하다가 자기회회의 구렁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반응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바란다. 남성에게 위의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던져진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원래 남자들이 쿨해서 어디가나 적응력이 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질문들은 여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가 말을 잘 하지 않고 웃지 않으면 무뚝뚝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이해되지 (심지어는 뭔가 있어보이지나!) 그 남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사교성이 "홈"으로 여겨지는 여자는 항상 모임에서 명랑해야 하며, 재미있어 해야 하며(최소한 그렇게 보여야 한다), 분위기에 잘 녹아들여지도록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기제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으며 "벨스런 여자"로 낙인화되는 것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사실 내가 불편해했던 것은 나이순, 학년 순, 성차에 의해 매겨지는 위계 질서가 가하는 폭력과 나서면 나선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 하는 술자리 문화였고, 점심시간에 만나면 약속이 없는 한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 학교 길에 만나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까지 같이 걸어야 하는 관습이었다. 이게 다 적응하지 못한 내 책임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과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회피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관조하기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면을 쓴다. 고학년이 될수록 여자 선배들이 모임에 안 나오는 것이 여자들 특유의 '소속의식 결여'나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무언이건 유언이건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관관계의 진리"란 날씬

한 체형을 위한 옷처럼 어느 한 시기에만 입을 수 있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준 사람도 없었거니와 어느 정도 다같이 좌절(?)을 겪기 전까지는 여자끼리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대하기보다는 혼자서 곳곳이 건디거나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척 연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냥 그래야 할까?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반응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바란다. 남성에게 위의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던져진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원래 남자들이 쿨해서 어디가나 적응력이 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질문들은 여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나에게 포기도 타협도 아닌 제3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 준 것은 다른 여자들이 솔직하게 "나도 그래"라고 말해준 글들이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엔 이미 나만의 성(城)을 쌓아 올린 시기였고,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훨씬 그 다음의 것이었다. 첫 계기는 "두입술"에서 쓴 작은 책자였는데 1년여에 걸친 성찰이 담긴 글들이 다 내 이야기 같아서 한 번 놀랐고, 그 책을 만든 사람들이 4명인가 5명이었던 것에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두고 혹시 같은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지 출석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다행히도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총여학생회에서 내는 "떡볶이 수다"도 그 중 하나였다. (월간이기에 다른 책자에 비해 자주 나와서 더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내가 계속 티도 내지 않은 애독자에 머무르리라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매체들은 아주 천천히 새로운 인연들을 선물해주었다. 나는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수업을 계기로 총여 사람들을 만났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에게겐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여성학 수업을 들은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마음이 통하는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성매체가 가지는 진짜 의의는 이러한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 쪽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재미가 없다. 삼삼오오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우리"끼리 같이 여행을 하고, 토론을 하고,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해방감이란!!! "떡볶이 수다"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모으게 하는 채널의 기능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책자 속의 글들 만큼이나 값진 일일 것이다. 물론 그것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대학친구들은 모두 가식적이며 온근한 친구들간의 경쟁과 질투에 진저리가 난다"? 그래도 다른 성격의 관계 맺음을 위해 인간관계에 관한 "진리"에 확신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조금만 연기해 보면 어떨까?



2003년 화제의 홈페이지 - www.ysfem.or.kr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www.ysfem.or.kr 의 대 변신

제1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일/破/만/波는 자신들이 준비할 홈페이지에서 여성문제/여성학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연세인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 했지만 이제껏 여성학/여성문제와 관련한 정보들은 잘 전달되지 못해왔다. 특히 여성학에 대한 연세인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 수 있는 여성학/여성문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해졌었는데 이를 일/破/만/波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www.ysfem.or.kr을 만난 후, 여성학이 좋아졌어요!



▲총여 학생회장 연세인

누구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성학

- 이제까지 여성학은 알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 괜히 골치 아프게만 느껴지는 무언 가였어요. 그런데 www.ysfem.or.kr을 만난 후 그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몰라서 괜히 두렵고 무서웠던 여성학이, 알고 보니 내 일상에 대한 즐거운 고민의 장(場)이었다고요. 여성학, 여성주의, 여성문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분들, 그렇지만 저처럼 선뜻 나서지 못했던 모든 분들께 www.ysfem.or.kr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네요.



▲여성학 레포트 작성한 연세인

여성학 레포트, 성공했습니다!

오늘 여성학 레포트 제출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페미니즘을 알고 싶어 여성학 수업을 신청하긴 했는데, 막상 어떤 책을 어디서 어떻게 읽고 수업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www.ysfem.or.kr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레포트 준비도 훨씬 수월해졌죠. 여성학 수업 들으시는 분들, 꼭대 가지 마시고 www.ysfem.or.kr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문제나 여성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여성학 수업도 점점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많이들 난감해 하였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여성주의를 괜히 어렵게만 느끼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즐거운 여성주의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홈페이지의 정보창고로의 변신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주의적인 성찰의 흐름을 멀리 퍼뜨릴
일/破/만/波의 홈페이지가 기대된다.



섹슈얼리티, 성매매, 여성문화, 여성노동, 성폭력 등 여성학/여성주의에 대한 궁금증이 싹~ 여성들만의, 편안한 자기 이야기의 공간, 여성전용 익명 게시판도 계속됩니다.



신기한 건 그토록 다양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압적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면 그만인가.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
었다고 하는데, 잘못하고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잖아. 정말
정말 실수로 모르고 발을 밟았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당
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 될 수도 없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하니, 그
당당함과 낮두꺼움이란..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주의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
고, 성폭력 해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모든 성폭력적 발언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의도를 강조하는 목
적은 무엇인지.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중
요한 건 그 사람이 성차별주의자나 아니냐가 아니라 성차별
적 행위를 했나 안했느냐잖아.

결국 이런 나에게 들리는 얘기는 왜 그렇게 세상을 편협
하게 바라보느냐 다양성을 인정할 줄 모르느냐 말들인데, 사
회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것들에 대
한 맹목적인 인정은 분명히 아니잖아.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도
다양성을 이루는 것인데, 반대는 언제나 다양성의 적으로 받
아들여질 뿐. 신기한 건 그토록 다양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압적이라는 사실
이 아닐까.



정후보 김한선혜/여량(사회계열 00)
부후보 박이은현/노래(인문계열 00)

이끌말 이김경진/달리(문과대 인문학부 99)

생각말 서변종성/뚝(문과대 인문학부 98)
이진영(사회과학계열 99)

행김말 김희정/새움(문과대 인문학부 99)
심이연희/파문(인문계열 00)
박하영/센(생활과학계열 02)
강지영/내름(사회계열 00)
석혜림/흙씨(인문계열 00)
전미선/들(행정 00)

역음말 이진영/술(인문계열 00)

알림말 김다명/단단(문과대 인문학부 98)
김남수진/샘(인문계열 00)
이지예/나비(사회계열 01)

아울말 하승연(인문계열 00)

살림말 이송규호(사회계열 00)

새모람 박유미/흐름(인문 98)
윤인영(상경계열 01)
오형탁(상경계열 02)
강문선(인문계열 00)
이예리(생활과학계열 02)